

진리란 무엇인가? - 세 번째

엠마오로 가는 길

Jeff Pippenger

2023-09-07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직후부터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까지, 14장부터 17장 끝까지 긴 서사가 이어진다. 나는 다음 글에서 이 장들을 다룰 생각이다. 이 글은 그 장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놓는 글이다.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개혁 노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장들에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대화는 예루살렘 입성 직후이자 십자가 직전에 해당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이어 그 서사가 전개되며, 그 다음 겟세마네로 가셨고, 그날 자정에 체포되었으며, 십자가에 이르게 하는 일곱 단계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분과 제자들은 예언적으로 칠월 운동으로 대표되는 역사 속에서 엑서터 야영회 직후이자 대실망 직전에 위치해 있었다. 최후의 만찬 직후에 시작되는 그 서사에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1.

큰 실망이 불과 몇 시간 앞에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도록 제자들을 강하게 하시려 했다. 일곱 우레로 상징되는 사건들을 구성하는 네 가지 이정표 속에 있는 숨겨진 예언의 흐름은 요한복음의 서술 속 세 단계가 전개되는 역사이다. 그 숨겨진 흐름은 일곱 우레 안에서 첫 실망에서 마지막 실망에 이르는 역사를 나타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유다 이스가리옷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산헤드린에 가기 위해 만찬 자리를 떠났다. 그가 산헤드린과의 세 번째 만남을 위해 만찬 자리를 떠났을 때, 그의 은혜의 기회가 끝났다.

일곱 천둥의 상징 안에 있는 숨겨진 선이라는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은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드러나는 한밤중의 외침을 대표한다. '진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루는 가운데 글자의 이정표는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이다. 열셋은 반역을 상징하며, 예언적 이정표로서 그것은 미련한 처녀들이 반역의 드러남을 대표하는 한밤중의 외침을 가리키고, 승리의 입성이라는 이정표에서 유다 또한 그러하다.

"밀 가운데에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가라지가 있을 것이며,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미련한 처녀들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등불은 있으나 그릇에 기름이 없는 자들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교회 안에도 탐욕스러운 유다가 있었고, 교회의 역사 전 시기마다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시대의 징조, 1879년 10월 23일.

유다는 돈을 돌려주고, 가야바에게 이어 그리스도께 자신의 배신을 시인한 뒤, 목을 매러 갔다. 법정을 떠나면서 그는 기름을 얻지 못했음을 깨달을 때 어리석은 처녀들이 처하는 딜레마를 그대로 드러내는 바로 그 말로 외쳤다.

유다는 자신의 간청이 헛되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고 외치며 홀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는 더는 살아 있을

수 없다고 느꼈고, 절망 가운데 밖으로 나가 스스로 목을 댔다. 시대의 소망, 722.

유다는 거짓된 '한밤중의 외침' 기별을, '홀에서 뛰쳐나가며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라고 외친' 모습으로 보여 준다. 그 기별은 항상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드러내며, 밀러주의 역사에서처럼 참된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전해진 뒤에도 미련한 처녀들은 거짓 기별을 들고 계속 나아간다. 그러므로 밀러주의 역사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간 작은 무리를 반대하면서 윌리엄 밀러를 지도자로 선택한 운동이 있었다.

나의 마음은 신호가 내려질 때의 미래로 이끌려 갔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그를 맞으러 나가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등불을 다시 채우기 위한 기름을 구하기를 지체할 것이며, 너무 늦게서야 기름으로 상징되는 품성은 옮겨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2월 11일.

숨겨진 역사의 세 번째 이정표는 심판을 의미하며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표현된다. 그 글자는 '타브'이며, 글자 형태가 십자가 모양이다. 십자가는 심판을 상징한다.

밀러파 역사에서의 첫 번째 실망으로부터 한밤중의 외침에 이르기까지, 또는 문자 알파에서 열세 번째 문자에 이르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있는데, 이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체하는 때로 규정된 것이며 하박국 2장에도 나오는 지체의 때이다. 한밤중의 외침, 곧 반역의 열세 번째 문자에서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에 해당하는 대실망에 이르기까지도 또 하나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칠월 운동'이라 불렸다. 그것이 일곱 달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그리스도께서 유대력 일곱째 달 열흘, 곧 속죄일에 오실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8장까지의 서술의 맥락은 밀러주의 역사에서 일곱째 달 운동을 예표하는 한 시기에서 시작된다. 요한복음 서술의 주된 목적은 다가올 십자가의 위기(문자 '타브')에 대비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제자들에게 슬픔과 불확실성, 실망의 때가 될 것임을 밝히셨다. 개혁선들의 증언에서 나타나는 모든 초기 실망의 예언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그 실망은 이전에 계시된 중요한 진리를 경시함으로써 초래된 상태를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과거에도 지금도 중요한 진리였고,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위기는 너무 크고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들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높이 들리셨을 때, 제자들의 소망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들은 그 일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일에 관해 그리스도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믿음과 행위, 63.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네 장 전체 서사의 요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한밤중에 체포되실 때부터 그분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뒤 돌아오실 때까지 겪게 될 실망의 기간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셨다는 것이다. 그 네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 계셨던 그 기간은 지체하는 때를 상징한다. 역사적으로 내가 지체하는 때로

규정하는 그 기간은 십자가의 위기 이후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네 장에서는, 그것들이 예언적으로 십자가의 큰 실망 이후가 아니라 첫 번째 실망과 함께 시작되는 지체하는 때를 나타낸다.

왜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실망에 대비시키셨던 그 일이, 그리스도의 개혁 노선에서 첫 번째 실망이었던 나사로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다고 말하는가? 이 질문은, 일곱 우레의 감추어진 역사와 관련하여 지금 봉인이 풀리고 있는 진리들을 지지하는 빛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네 장에 담긴 서사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은 지체의 때와 일치한다. 그리스도는 이어서 승리의 입성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리스도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도착함으로 지체의 때가 이미 끝나고 일곱째 달 운동이 시작된 그 역사적 시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가 일곱 천둥의 상징적 역사에서 봉인이 풀려 드러난 감추어진 역사의 규명을 어떻게 확증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실망의 이정표가 첫 번째 실망의 이정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한 예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겪은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밀러파 역사에서 지체의 때가 끝난 것은 이전에 실패했던 1843년 예측의 수정이었다. 대실망으로 결말 난 칠월 운동을 촉발한 그 기별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무엘 스노가 한 일은, 그가 출판한 글들과 엑서터 야영집회에 이르기까지의 공개 발표들을 통해 그의 이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따라가면 역사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영감으로 된 해설은 그 발전을 스노의 최종 기별이 역사적으로 전개된 경과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 화이트 자매는 주께서 하박국의 1843년 도표 위의 수치에 있던 실수에서 손을 거두셨을 때 그 기별이 인식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에 차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려는 뜻을 가지셨다. 그분의 손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데 생긴 한 실수를 감추셨다. 주님을 기다리던 이들은 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 시기를 반대하던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실망을 겪도록 뜻하셨다. 때가 지나가자, 구주를 기쁜 기대 속에 바라보던 자들은 슬퍼하며 낙담했으며,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기대하던 때에 그분이 오지 않은 것을 기뻐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마음을 감화시키지도 생애를 정결하게 하지도 못했다. 그 시간이 지나간 것은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기에 매우 적합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돌아서서, 자신들의 구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슬프고 실망한 이들을 조롱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시련의 때에 움츠러들어 뒤로 물러갈 자들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에게 철저한 시험을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

예수님과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은 그들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뵈기를 간절한 기대 속에 오랫동안 사모해 온 이들을 동정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시련의 때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천사들이 그들 주위에 머물렀다.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소홀히 한 자들은 어둠 속에 버려졌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보내신 빛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 자기들의 주께서 왜 오지 않으셨는지 이해하지 못해 실망했지만 신실했던 이들은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성경으로 인도되어 예언 기간들을 탐구하였다. 주께서 숫자들 위에 두셨던 손이 거두어지자, 그 잘못이 밝혀졌다. 그들은 예언 기간이 1844년까지 이어진다는 것과, 예언 기간이 1843년에 마친다고 보이기 위해 그들이 제시했던 바로 그 증거가 오히려 1844년에 종료함을 증명한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빛이 그들의 입장에 비치자, 그들은 지체의 때를 발견했다—'비록 [그 환상]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리스도의 임박한 오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드러내도록 마련된 그 환상의 지체를 간과했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정해진 시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심한 실망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여, 1843년에 그들의 믿음을 특징지었던 그 정도의 열성과 활력을 지니지 못함을 보았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 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던 자들은 그들이 '미혹'이라 부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신의 선견지명 있는 판단과 지혜를 스스로 자축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으며, 하늘에서 보낸 메시지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연합하여 일하고 있었다.

"이 기별을 믿는 이들은 교회들 안에서 억압을 받았다. 한동안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속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다. 그들은 예언의 기간이 1844년까지 이어진다는, 기다리는 자들이 마땅히 증거해야 한다고 느꼈던 그 증언을 침묵시키려 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왜 1844년에 그들의 주께서 오실 것으로 기대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했다. 반대자들은 제시된 강력한 근거를 반박할 논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교회들의 분노가 타올랐고, 그들은 증거를 들으려 하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 증언을 교회에서 차단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다른 이들에게 차마 감추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났으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서 기뻐하였다. 그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Early Writings, 235-237.

방금 제시한 역사는 2020년 7월 18일의 경험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서술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요점은, 엑서터 야영집회에서 사무엘 스노우가 전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보여 주는 이해는 스노우의 역사적 활동이 아니라 주의 손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분의 손이 어떤 잘못을 덮고 있었고, 그분이 그 손을 거두셨을 때에야 밀러주의자들은 자신의 실망을 이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지체하는 때'로 표현된 기간에 있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거두심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핵심 요소이다. 이것은 '지체의 때'로 알려진 기간의 끝을 예표하며, '한밤중 외침'이라는 기별이 상징하는 깨달음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러나 엠마오 길의 사건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났는데, 십자가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첫 실망이 아니라 대실망을 상징한다.

보라, 바로 그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육십 펄롱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의논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와 그들과 함께 길을 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길을 가며 슬퍼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13-16.

본문에서 "eyes"라는 단어는 실제 눈이라는 기관 자체라기보다 보는 능력을 가리킨다. "holden"이라는 단어는 힘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십자가의 예언적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려 두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손은 그의 힘의 상징이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슬픔은 그들의 큰 실망을 나타냈다. 실망한 제자들이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더딘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하셨다.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더 가려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간곡히 청하며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머무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과 함께 머물러 들어가셨다. 누가복음 24:25-29.

예수께서는 성경 해석의 "역사주의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모세로부터 시작해 거룩한 역사를 따라 이어져 온 예언의 줄기들을 통해 십자가의 역사를 식별하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옛 길과 "줄에 줄을 더하는" 방법론을 대표하는 과거 예언 역사의 줄기들을 사용하여 실망한 제자들을 교훈하셨다. 그분이 그들을 떠나 계속 가시려는 듯 보이자, 그들은 그분을 강권하여 들어와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했다. 그들은 지체하는 때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당신의 손을 거두시려 했다. 그분의 손이 거두어지면 그 지체하는 때는 끝나게 되었고, 그들이 어둠 속을 헤치며 예루살렘에 있는 열한 제자에게로 서둘러 돌아갈 때, 그들은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전파되는 속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실 때, 그는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를 알아보았고, 그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누가복음 24:31.

예수님은 예언적 환상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을 붙들고 계시던 손을 거두셨고, 그렇게 하시자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를 가져오셨고, 그들은 식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으니, 각 메시지는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즉시 "땅을 가로질러 밀려오는 해일처럼" 열한 제자에게 알리려 달려갔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실 때와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 시각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가 떡을 떼실 때 그들이 그를 알아본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여 영을 본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고 보라.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다. 그들이 너무 기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드렸다.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 말이 이것이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누가복음 24:32-45.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경 속 과거의 거룩한 역사들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설명하시며 그 기별을 제시하셨고, 그들에게 식사의 본을 보이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기별을 먹어야 한다. 그들의 불확실함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은 과거의 거룩한 역사들이 줄에 줄을 더하여 한데 모아진 것을 바탕으로 한 현재진리의 기별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을 열어 주심으로, 자신의 죽음에서부터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지체의 때를 마무리하셨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한밤중 외침의 기별과 연합하여 능력을 받는 둘째 천사를 대표함)는 십자가 이후에 있었던 지체 기간을 한밤중 외침에 앞섰던 지체 기간과 동일시한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실망은 예언의 선상에서 첫 번째 실망을 대표하며, 대실망이 아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이어서 실망에 빠린 열한 제자들에게서 다시 반복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합류하시어, '역사주의'라는 방법론을 통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치시고,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깨달음을 열어 주신다. 이야기의 시작이 곧 이야기의 끝을 가리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실망이 첫 번째 실망에 예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하신다. 그는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역사의 구조에 대한 세 번째 증거를 제공하신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회개와 죄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가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는 동안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항상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24:46-53.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묘사는, 그분이 죽으신 때부터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승천하실 때까지 이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지적한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과거의 거룩한 역사들의 맥락들을 서로 맞추어 구절을 구절에 맞대는 방법론으로 십자가 사건의 메시지가 확립되었을 때 끝났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전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열한 제자를 만나시는데, 다시 한 번 식사하는 장면이 언급되고, 메시지를 증명하기 위해 구절을 구절에 맞대는 방식이 사용되며, 엠마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깨달음을 열어 주신 뒤 떠나신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역사를 분명히 밝히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의 끝이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실망을 나타냈고, 이어 기다림의 때가 있었으며, 그 뒤에는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진리의 계시가 뒤따랐다. 그 진리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자신의 손을 거두셨을 때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고, 이야기의 중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들의 이해를 열어 주심으로 열한 제자의 실망을 거두셨을 때, 같은 이야기로 반복된다. 그런 다음에는 큰 실망이 아니라 첫 실망에서 시작되는 동일한 예언적 구조에 대한 마지막 증거가 있다.

엠마오에서 오순절에 이르는 역사는 첫 번째 실망, 기다림의 때, 그리고 한밤중의 외침에 대한 세 가지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세 증거 각각의 시작점에 놓인 이정표로서의 실제 실망은 사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실망이었다.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대실망이라는 이정표가 같은 역사 속 첫 번째 실망을 예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식사와 자정에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 사이에 전개되는 요한복음의 네 장에 담긴 서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예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과 함께 잡수셨을 때, 그가 “왜 너희가 근심하느냐? 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으셨음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직후,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시작한다. 불과 닷새 만에 그들은 바로 그 명령을 잊어버렸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2020년 7월 18일의 첫 번째 실망을 대표하며, 그것은 지체의 때를 불러오고,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인봉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어지며, 또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대표한다. 그 기별은 일곱째 달 운동으로 예표된 한 기간을 불러오며, 깊은 밤에 에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려간 것으로도 예표된다. 그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진리’로 나타내시며 사용하신 히브리어 세 글자로 상징된다.

요한복음의 이 네 장의 서술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단계들로 식별됨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최종 성취가 이제 점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현재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최상의 증거도 발견한다. 그 기별이 마침내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인정되면, 그 사자들이 “말세”의 마지막 경고 기별을 죽어가는 세상에 전함에 따라 세상은 일요일법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